

# 年 820만원...대학 뺨치는 사립초·중 학비

### 입학금만 130만원...연간 600만원 웃도는 초교 광주 3곳 “귀족학교 위화감 조성” vs “사회에 필요한 인재 육성” 논란

자녀 1인당 학부모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비용(학부모 부담금)이 600만원이 넘는 사립초등학교가 광주에만 3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연간 820만원에 이르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학교측은 자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영어·인성·예술·독서 분야를 특색있게 가르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낸다는 입장이지만, 국립대 1년 등록금과 맞먹는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학생만이 입학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교육이다',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에서 가장 많은 학부모 부담금을 거둬들이는 초

등학교는 살레시오초등학교로 파악됐다. 이 학교 학부모부담금은 2017년 신입생 1인 기준 입학금 136만원, 수업료 499만원, 스쿨버스 70만원 등 706만원이었다. 다음으로는 광주송원초, 광주삼육초였다. 송원초 신입생 학부모가 연간 부담해야 할 학비는 입학금 91만원, 수업료 479만원, 스쿨버스 50만원 등 총 620만원이었다. 삼육초의 경우 입학금 104만원, 수업료 467만원, 스쿨버스 34만원 등 606만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이들 학교 재학생수(1~6년)는 살레시오초 555명, 송원초 573명, 삼육초 612명이다.

이들 학교들은 대체로 사립중·고등학교와 달리 재정결합 보조금(인건비 등) 지원

이 되지 않고 각 학교별로 특색있는 교육이 진행되면서 학부모들이 부담할 비용이 자연스럽게 많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영어수업, 영어캠프, 국제교류행사, 1인 1악기 교육, 심화 독서 교육 등 초등 단계에서부터 특색있는 교육을 진행해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부모의 재력은 자녀가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정 환경이 교육기회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교육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이들 사립초를 가리켜 '귀족학교'라고 부르며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과연 학생들도 만족해하는 것일까'하며 의문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다.

황법량 '학벌없는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무상교육 시대에 이들 사립초가 값비싼 학비를 거둬들이는 우리가 익히 아는 선진국 사립초처럼 다양

하고 특색있는,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가 학비와 별개로, 신입생 선발시 재학생 가족을 우대하는, 그래서 귀족학교 논란을 부르는, 불공정한 특혜 입학전형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주송원초 신명순 교장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정성을 쏟고 있다. 고가학비 관련해서는 특색있는 교육이 이뤄지는 만큼 학부모, 학생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삼육중의 경우 신입생당 학부모 부담금이 820만원으로, 광주·전남 사립초·중·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에서는 신입생 기준 645만원의 학부모부담금을 지우는 광양제철고가 광주·전남에서 학부모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침수지역 전염병 예방 방역 4일 광주 남구청 관계자가 최근 집중호우로 두차례나 피해가 발생한 남구 주월동 일대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 연막소독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제주 4·3 군사재판 재심 결정

제주 4·3 사건 당시 계엄령 하의 군사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수감됐던 80~90대 수형자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양근방(86)씨 등 4·3 수형 피해자 18명이 제기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청구사건과 관련,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도에 군법회의가 설치·운영됐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고, 재심청구인들을 수형자의 신분으로 수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유권적인 결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 재심청구인들이 육지로 이송돼 각 교도소에 구금됐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광주기독병원 임단협 난항...노조 파업 예고 수험생 60만명, 오늘 수능 모의평가 치른다

사측과 임단협 합의점을 찾지 못한 광주기독병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기독병원 지부는 4일 오후 5시 30분부터 병원 로비에서 파업 전야제를 진행한다. 노조는 5일 오전 7시에는 전면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주기독병원 노사는 지난 7월부터 올해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조는 지난달 20일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정외행위 조정신청을 냈다.

3차례 회의 끝에 이날 오전 지노위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광주기독병원 노사는 합산 10여명 규모인 부서별 인력확충, 유급감정휴가 부여, 신규 간호사 업무 숙지 기간을 1주에서 4주로 늘리는 방안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임금 인상 폭도 노조는 올해 총액 대비 4%를 요구하고, 사측은 1.2~1.9%를 제시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광주기독병원 노조 관계자는 "지노위 조정 중지 결정 뒤에도 한 차례 더 실무교섭을 진행했다"며 "사측 의지가 있다면 대화를 이어갈 뜻이 있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는 모의평가가 5일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를 5일 전국 2088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31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다.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60만 780명이며 이 가운데 재학생은 51만 4436명, 졸업생 등은 8만 6344명이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지원자가 7295명 늘

었다.

영역별 지원자는 국어 59만 9949명, 수학 가형 21만 248명, 나형 38만 5083명, 영어 59만 9326명, 사회탐구 31만 1679명, 과학탐구 27만 5087명, 직업탐구 1만 2282명, 제2외국어·한문 5만 7106명이다.

평가원은 5~8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7일 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성적은 10월 2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다음 달 예정된 고3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는 평가원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8    달뜨기 00:47  
해질 18:34    달짐 15:23

가을이 오려나봐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광주	맑음	20/29	보성	맑음	17/28
목포	맑음	22/29	순천	맑음	20/30
여수	맑음	22/29	영광	맑음	20/29
나주	맑음	19/29	진도	맑음	21/28
완도	맑음	21/29	전주	맑음	19/29
구례	맑음	18/28	군산	맑음	20/29
강진	맑음	18/29	남원	맑음	17/28
해남	맑음	19/29	흑산도	맑음	23/28
장성	맑음	18/2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면바다	서~북서	1.0~2.0	서~북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면바다(동)	서~북서	1.0~2.0	서~북서	1.0~2.0
	면바다(서)	북서~북	1.0~2.0	서~북서	1.0~2.0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시각	수위	시각	수위
여수	02:38	09:11	14:52	22:23
	10:43	04:30	--:--	17:43

### ◇주간 날씨

6(목)	7(금)	8(토)	9(일)	10(월)	11(화)	12(수)
☀	☁	☀	☀	☀	☀	☀
20/28	22/26	21/27	19/29	20/29	21/28	21/28

## 전남대 연구비 수주금액 국립대 중 1위

지난해 2708개 과제 1409억

해석하고 있다.

전남대학교가 국립대 가운데 연구비 수주금액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정병석 총장 취임 후 우수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제도 확대와 신입 교수 실험실 구축 지원, 신속한 연구자 애로사항 처리 등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일 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남대는 지난해 2708개 과제 선정과 함께 연구비 1409억원을 지원받아 전국 국립대 중 1위를 차지했다.

전남대는 올해 상반기에만 이공, 인문, 수산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형국책연구과제 7건에 선정돼 연구비 50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국내 전체 대학 중 과제 선정 5위, 연구비 수주금액 9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정 총장은 "그동안 축적된 연구역량과 대학 차원의 연구자 중심 지원 시스템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전체 대학 중 과제 선정 5위, 연구비 수주금액 9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윤영희 기자 penfoot@kwangju.co.kr

## “채용시험 목전 동원예비군 횡수 구매 없이 연기 가능”

민간기업·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일을 목전에 두고 동원예비군 훈련이 소집됐다

수해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공무원시험은 물론 민간기업 채용시험 응시생 모두 연기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횡수에 구매받지 않고 연기할 수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4일 밝혔다.

병무청의 규정에 따르면 시험응시·질병·천재지변·주요업무 등으로 훈련 연기를 입영일 5일 전까지 제출하면 통상 2회까지 연기에 주게 돼 있다.

권익위는 공무원 필기시험 이를 전에 동원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A씨의 아버지가 “아들이 훈련을 이미 두 차례 연기했는데도 연기할 수 없다”는 고충민원을 접

데도 연기할 수 없다”라는 고충민원을 접

수해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공무원시험은 물론 민간기업 채용시험 응시생 모두 연기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의 규정에 따르면 시험응시·질병·천재지변·주요업무 등으로 훈련 연기를 입영일 5일 전까지 제출하면 통상 2회까지 연기에 주게 돼 있다.

권익위는 공무원 필기시험 이를 전에 동원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A씨의 아버지가 “아들이 훈련을 이미 두 차례 연기했는데도 연기할 수 없다”라는 고충민원을 접

데도 연기할 수 없다”라는 고충민원을 접

수해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공무원시험은 물론 민간기업 채용시험 응시생 모두 연기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의 규정에 따르면 시험응시·질병·천재지변·주요업무 등으로 훈련 연기를 입영일 5일 전까지 제출하면 통상 2회까지 연기에 주게 돼 있다.

권익위는 공무원 필기시험 이를 전에 동원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A씨의 아버지가 “아들이 훈련을 이미 두 차례 연기했는데도 연기할 수 없다”라는 고충민원을 접

데도 연기할 수 없다”라는 고충민원을 접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 無덤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파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 (062) 412-2800